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 전문가의 보고서,

클라우디아 말러 *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Claudia Mahler *

요약

본 보고서는 노인 인권에 관한 결의안 42/12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독립 전문가는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의 만연함에 대한 조사와 인식 개선 활동 및 가능한 원인과 징후를 분석한다. 또한 국제 및 지역적 차원에서 기존의 법과 정책적 틀이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예방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이후 독립전문가가 내린 결론과 권고사항은 각국이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해소 및 예방하며, 노인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틀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보고 기간 중 독립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개요도 담겨 있다.

* 제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계획된 발간일 이후 본 보고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했음(Agreement was reached to publish the present report after the standard publication date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the submitter's control).

VI. 노인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의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의 징후 (Manifestations of ageism and age discrimination in the lived realities of older persons)

A. 건강과 장기요양서비스(Health and long-term care)

59. 노인은 의약품과 치료의 최종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참가자의 나이 제한을 65세 또는 75세로 정하는 임상 연구에서 많은 경우 배제된다.⁵³ 보건 분야 내 뿌리 깊은 연령차별에는 약물치료 거부, 비난, 구타, 격리, 유기, 방치, 노인 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⁵⁴ 연령주의는 높은 조기 사망률, 악화된 심신의 건강, 노년기 장애로부터의 느린 회복 속도 등으로 이어진다. 노인의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외에 연령주의는 매우 높은 경제적 비용도 야기한다.⁵⁵

60. 의료기관에서의 기타 연령주의의 징후로는 의료 전문가가 노인 환자의 연령을 불필요하게 언급하거나 그들과 대화할 때 무시하며 거만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이 같은 행동은 노인병학 관련 전문지식의 부족, 의과 대학에서의 나이듦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과목의 부재, 의료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노인학 문화뿐 아니라 노인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으로 볼 수 있다.⁵⁶ 코로나 19 팬데믹의 여파로 요양 시설 직원과 그 거주자에게 필요한 보호 장비 부족 이슈와 함께 거주자를 고립시키고 그들에게 의료 개입과 완화 치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요양원에 대한 보고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모든 문제가 시설 거주자의 고독사에 영향을 미쳤다.⁵⁷

⁵³ Submission of the Austrian Ombudsperson for Equal Treatment, the Styrian Anti-discrimination Office and Stefan Hopf.

⁵⁴ Submission of the University of Pretoria.

⁵⁵ Submission of WHO.

⁵⁶ Submission of Dobroe.

⁵⁷ Submission of Amnesty International, Spain.

61. 의료 환경의 시설과 일상에서 의료 전문가 및 돌봄 종사자의 연령주의적 행동 또한 보고됐는데, 여기에는 치료와 관련한 환자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부정확한 의료 진단 및 노인 환자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⁵⁸ 일부 보고에 따르면 연령주의적 태도는 나이듦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의 태도와 비교해 평균 7년 정도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연령주의자는 치매와 같은 질병이 정상적인 나이듦의 과정이라고 잘못 판단한다.⁵⁹

B. 폭력과 학대(Violence and abuse)

62. 연령주의는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방치 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노인이 사회의 부담으로 인식될 때 그러하다. 폭력, 학대, 방치는 신체, 재정, 심리, 사회, 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 가정, 직장, 요양기관, 공공장소, 미디어, 사이버 공간, 긴급 상황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돌봄 종사자, 법적 보호자, 보건 전문가, 정부 근로자 및 금융 대리인 등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자행될 수 있다. 장기요양 시설의 인력 부족, 적절한 훈련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요양 시설 내 폭력과 학대의 높은 추정치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곤 한다. 제도와 지역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의 담론 일부는 노인을 중요하지 않고 처분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했으며, 요양 시설의 학대 및 방치에 대한 충격적인 상황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63. 사법기관이 노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길 가능성이 적으므로 폭력, 학대, 방치의 경험은 나이에 따라 가중될 수 있다. 어떤 사건의 피해자 연령이 높을

⁵⁸ Submission of ILC Israel.

⁵⁹ Submission of Panama.

경우 사회복지사가 그 사건을 학대라고 분류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이 적다는 증거도 있다.⁶⁰ 결과적으로 노인이 연관된 대부분의 침해와 학대 사건은 용인되거나 덮인다. 연령이 폭력, 학대 및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라는 인식의 부족은 노인 피해자에 대한 비가시성과 보호 부족에 한몫한다.

64.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적절한 정책과 조치가 노인에게 맞게 조정되거나 노인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인식 제고 캠페인에 노인을 고려하지 않거나, 특정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신고 및 보호 과정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노인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나 고소 방법을 알 가능성이 작거나, 그들이 당한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실제 노인학대 신고는 2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⁶¹ 특히 가해자가 보호자이거나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일 때 수치심, 애정 상실, 보복, 더 많은 학대 및 기타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소신고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불평등한 권력 관계 때문에 폭력, 학대, 차별 등이 만년에도 여전히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관련 법률의 부재는 노인 피해자의 비가시성과 그에 대한 보호 부족에 일조한다. 그 결과 노인이 겪는 대부분의 침해와 학대는 용인되거나 무시된다.

⁶⁰ Rachely Yechezkel and Liat Ayalon, “Social workers’ attitudes towards intimate partner abuse in younger vs. older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No. 28 (2013), pp. 381–391.

⁶¹ WHO, “Elder abuse”, fact sheet, 15 June 2021.

C. 고용과 은퇴(Employment and retirement)

65. 노인은 노동에 있어서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에 직면한다.⁶² 연령주의적 취업장벽은 노인의 노동권을 저해하는 정년퇴직, 채용 연령 제한, 노인의 노동능력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회규범 등을 포함한다.⁶³ 연령차별과 관련하여 평등기구(equality bodies)에 제기되는 많은 불만은 고용 부문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이 고용주가 연령을 이유로 취업 지원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원자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해 연령주의적인 가정을 하므로 젊은 지원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고 느끼는 50세 이상의 취업 지원자들에게서 나온다.⁶⁴ 연령주의는 나이 많은 노동자가 훈련과 승진의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도 지적되었고, 노인이 감봉과 조기퇴직 강요의 대상이 되게 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되었다.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일부 국가는 정년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⁶⁵

D.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66. 상기 수임자가 지적했듯이, 노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 보장의 장벽 중 하나는 노인의 기여와 미개발된 잠재력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이러한 이해 부족은 연령주의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차별 사례와는 달리 연령주의는 그 암시적이고 잠재의식적인 성격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며, 대부분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정책에 만연해있다.⁶⁶

⁶² Submission of HelpAge International.

⁶³ Submission of ILC Canada.

⁶⁴ Submissions of Czechia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of the Philippines.

⁶⁵ Submissions of Alliance of Age and ILC Israel.

⁶⁶ A/HRC/39/50, para. 25.

67. 노인이 유급 노동을 그만두면 사회적 배제의 높은 위험에 놓인다.⁶⁷ 많은 지역에서 특히 가장 나이가 많은 연령대의 노인이 빈곤에 놓일 위험이 크다. 연령주의는 이웃 활동에서의 노인 통합도 감소시켜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한다.⁶⁸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이 노인 돌봄 관련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할 때 병원에 노인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⁶⁹

E.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68. 독립전문가에게 공유된 정보에 의하면 재화와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연령차별과 관련된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⁷⁰ 노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장벽은 크게 연령 제한, 디지털 전환, 빈곤 또는 저소득 등 세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적 맥락에서 여성노인이나 이민자 지위와 같이 개인이 직면하는 교차성으로부터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는 공정한 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장벽에 대한 인식 제고⁷¹와 제거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녹색 및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장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F. 미디어 및 증오 발언(Media and hate speech)

69. 노인에 대한 괴롭힘과 비방은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다. 노인은 소셜미디어에서 “병상 점거자(bed blockers)”로 일컬어졌고, 일부 언론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노인 “도태(cull)”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⁶⁷ Submission of Albania.

⁶⁸ Submission of ILC Israel.

⁶⁹ Submission of University of Pretoria.

⁷⁰ Submissions of Unia, Germany,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of Georgia, and Michaela Honelova.

⁷¹ Submission of Finance Watch.

했다.⁷² 이러한 발언은 구조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세대 간 긴장을 부채질하며 증오 범죄와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노인 공격 사건이 보고되기도 했다.⁷³

70.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연구에 따르면 특히 정치 및 경제와 관련된 이슈에서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편견, 차별적 혐오 발언, 노인을 겨냥한 부정적인 태도 등이 드러났다. 이러한 혐오 발언의 주된 이유는 "세대 갈등"이었다.⁷⁴

G. 긴급상황(Emergency contexts)

71. 설계가 부실하거나 연령에 민감하지 않은 긴급상황 정책과 계획은 노인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편견적 가정에 따라 활동하는 구호 요원은 긴급상황에서 노인에게 차별적일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이 부적절한 구호 서비스를 받아 생명과 건강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할 수 있다. 기후 변화 등과 관련된 긴급상황에 대한 준비 및 계획과 그 정책에 노인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하며, 노인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⁷⁵

72. 기후 변화는 전 세계 노인에게 계속해서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연령주의에 의해 악화하는데, 노인 인구를 수동적이고, 능력 없으며, 내성적인 존재로 보는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⁷² Joe Roberts, "Telegraph journalist says coronavirus 'cull' of elderly could benefit economy", Metro, 11 March 2020.

⁷³ Josh Halliday, "Teenagers held for allegedly coughing at and assaulting elderly couple", *The Guardian*, 23 March 2020.

⁷⁴ Submission of the ASEM Global Ageing Center(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제출).

⁷⁵ A/HRC/42/43, paras. 44-48.

연령주의는 노인이 법과 정책에서 도외시되고 무시당하며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연령주의는 노인의 긍정적인 기여를 눈에 보이지 않게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는 사실은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세계 인권법의 부재로 국제 환경 협정에서도 노인이 자주 간과된다는 점이다.

VII. 결론 및 권고(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73.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은 인권침해이며 다른 인권침해로 이어진다. 세계적으로 연령주의의 만연과 편재가 심해 노인에 대한 차별, 소외 및 배척이 표준으로 생각될 정도이다. 이렇듯 해로운 생각은 사회 및 개인적 정체성을 손상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에 일조한다. 고정관념은 개인, 조직 및 관행에 깊이 박혀 있으며 국내,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의 법과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다.

74. 노인의 엄청난 다양성과 기여도는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장애인 차별주의 및 차별의 근거 등 다른 형태의 차별주의와 연령이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차적 접근은 노년기의 맥락에서 연령주의와 복합적 형태의 차별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75. 연령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은 "건강한 나이듦(healthy ageing)," "활동적인 나이듦(active ageing)," 또는 "잘 나이들기(ageing well)" 계획의 중심 부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나이듦 관련 프로그램에서 개인의 행동에만 관심을 두고 다양한 개인이 삶을 구성하는 문화 및 사회적 구조 등의 환경을 무시한다면, 그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 전문가는 *연령주의 국제보고서(Global Report on Ageism)*에 의해 증가한 관심과 관련된 분석 등을 반갑게 여기고 있으며,

유엔 건강한 고령화 10년(United Nations Decade on Healthy Ageing) 하에서의 네 가지 행동 분야 중 하나로서 연령주의 근절이 선택된 것을 환영한다.⁷⁶ 이는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더 깊은 이해, 연구 및 조치를 장려하는 틀을 대표하며,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의 근절을 위한 유엔 시스템 내 더 많은 기관 간 협력 기회를 창출한다.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76. 독립 전문가는 인권기반접근이 연령주의에 도전하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틀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또한 나이듦과 노인이 관련된 법률, 정책, 제도적 관행에 인권기반접근이 잘 통합되는 것을 우선 사항으로 요청했다. 인권기반접근은 복지 모델(welfare model)에서 권리주체 모델(rights bearers' model)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뿌리를 두고, 생애 전반에 걸쳐 존엄, 평등, 자율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77. 나이듦에 대한 인권기반접근법은 연령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는 다양성을 아우르고, 포용을 위해 노력하며, 평등한 파트너로서 노인의 진정한 참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지원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선택의 행사는 기회가 확대되고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국가는 연금과 사회보장시스템 관련 정책 등의 모든 정책에 나이듦에 대한 인권기반접근법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기관, 민간 및 비공식 경제 부문 내에서의 훈련 등 지식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해야 한다.

⁷⁶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5/131.

차별금지법과 정책(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policies)

78. 연령에 따른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다른 형태의 차별과 동일한 검토 기준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직접적, 간접적, 구조적 차별과 합리적인 수용을 거부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차별의 정의가 담겨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다중적이고 누적적이며 교차적인 차별도 다루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노인의 자율성과 노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능력을 제한하는 연령주의적 편견을 가리는 예외, 면제, 이유 등을 피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효과적인 법적 구제책과 배상을 포함해야 한다.

79. 국가는 효과적인 배상 기제를 확립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 피해자를 위해 평등한 정의에의 접근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에는 법적 지원과 지지뿐만 아니라 접근할 수 있고 연령에 민감한 법적 절차도 포함된다. 국가는 공직자, 민간 부문 및 노인 등을 포함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 비차별과 연령 평등의 의미와 그 결과, 기존 법 조항과 사법적 구제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80. 평등권과 차별금지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차별금지 정책과 조치를 뒷받침하는 생애 접근법(life-course approach)과 함께 체계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81. 특히 정부는 정년퇴직 및 노인의 훈련, 교육, 건강과 기타 서비스에의 접근을 부정하는 연령분리 관련 법과 정책 등 연령차별을 촉진하고 구성하는 기존의 법, 규정, 관습과 관행을 검토, 수정 및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연령주의적 가정에 의해 뒷받침되고 연령평등의 원칙을 깎아내리기 때문이다.

82. 독립 전문가는 당사국이 나이듦에 대한 인권기반접근법을 정책에 포함하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기관, 민간 및 비공식 경제 부문 내에서 훈련 등 지식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83. 건강권과 관련하여 국가는 정책 및 법률 제정 과정에 노인을 포함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장기치료와 지원, 완화치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교차적 요인들의 가중 및 악화 효과를 포함하여 가능한 건강 기준에 이르기까지 노인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연령차별이 어떻게 저해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84. 국가는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 및 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연령주의 및 연령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 법률 및 실질적인 조치의 개발을 가속해야 한다. 인식을 높이고 미신고로 이어지는 연령주의적 가정, 편견, 고정관념을 근절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85. 각국은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 및 기후 변화와 재해 위험 감소 조치를 포함하여 긴급 대응과 복구를 준비하고 계획할 때 노인의 구체적인 요구와 기여를 식별하고 통합해야 한다. 더욱이 국가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긴급 상황 계획과 대응 검토 중 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재화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

86. 평등에 대한 자료는 비차별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 동향 모니터링과 향후 조치의 필요성을 식별하는 데 중요하다. 독립전문가가 그의 데이터 관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인은 데이터, 통계, 그리고 세분화된 데이터의

부족 등으로 여전히 대부분 도외시되는 집단이다. 국가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차별의 구조적 측면 등 불평등과 차별 패턴을 식별 및 가시화하고 평등 장려 조치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세분화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할 의무가 있다.

87. 수집된 데이터에는 다중 및 교차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 및 국가 수준에서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종합적이고 의미 있는 측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지표로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적 탈바꿈(Cultural transformation)

88. 연령주의가 제기하는 문화 및 사회적 과제를 고려할 때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는 연령주의의 근본 원인을 겨냥하여 사회가 나이듦과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화적 탈바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젊음의 규범에 맞지 않는 사람을 수용하려고만 하는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89. 노인이 이러한 탈바꿈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 국가는 노인 인구의 방대한 다양성을 대표하는 조직을 통해 노인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국가 인권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국가는 연령 평등 정책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국가는 다중 차별의 위험에 놓인 노인 집단을 식별하고 그들과 협의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평등한 참여를 위해 적절한 특별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90. 노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기술과 역량을 쌓게 하며, 내면화되고 자기 지향적인 연령주의를 줄이려는 전략과 함께 인식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는 노인을 쇠약하고 의존적인 돌봄 대상이나 사회의 짐으로 묘사하는 등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표현을 미디어가 지양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91. 교육적 개입과 훈련은 차별금지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필수적인 관용, 공감, 다양성, 세대 간 연대 등의 문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은 노인의 가치, 능력, 역할 및 연령주의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92. 세대 간 접촉 개입(Intergenerational contact interventions)은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이므로 연령주의를 다루기 위한 어떠한 종합적인 노력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양한 세대가 만나고 교류하며 서로 배울 수 있도록 공간과 서비스가 설계되어야 한다. 노인을 분리하는 정책과 조치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권 모니터링에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포함시키기

(Inclusion of ageism and age discrimination in human rights monitoring)

93. 독립 전문가는 연령차별과 노인의 생활 현실을 인권감시기구에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와 보편적 정례검토 및 기타 관련 검토 제도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94. 국가 인권기관 및 비정부 단체는 노인의 생활 현실을 담은 사례를 포함하는 데 집중하고, 인권 모니터링 등 그들의 업무에서 노인을 우선시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구속력이 있는 법적 장치(Legally binding instrument)

95. 현재의 법적 틀 안에는 노인인권 보호에 존재하는 격차를 체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단과 권한이 없다. 기존의 국제 및 지역적 틀 안에는 차별금지 사유로서의 연령 등 노년기 비차별과 평등권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의무 사항이 부재하다. 조약의 조항과 조약 감시 기구의 해석 대부분에서 연령주의는 빠져 있다. 국제인권법과 지역인권법의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장치 등 차별금지 사유로서의 연령을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이번 국문 번역 요약본은 원문의 'VI. 노인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의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의 징후'와 'VII. 결론 및 권고'를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의 70번은 본 센터가 제출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측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연구'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ndocs.org/A/HRC/48/53>).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elee@asemgac.org)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